

13

생활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 1 주변에서 생활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하는 제품 디자인을 찾을 수 있다.
- 2 다양한 제품 디자인의 목적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
지금까지
이런 제품은 없었다!
”



▲ L사(한국) 틱온 미니의 인테리어 사진 L사의 틱온은 소비자가 꽃, 채소, 허브 등을 손쉽게 키우고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식물 생활 가전이다. 식물이 발아하고 떡잎을 맺으며 성장해 가는 모든 과정을 즐길 수 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의 탄생

유일,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제품은 어떤 이야기와 함께 제작되었을까? 기술의 융합과 혁신으로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꾸는 디자인을 살펴보자.

◀ 다이슨(Dyson, James/영국/1947~) 에어 멀티 플라이어 (2009년) 세계 최초의 날개 없는 선풍기이다. 공기를 좁은 공간을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내보내면 주변 공기 온도를 낮추어 훨씬 더 큰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원리를 발견하여 개발되었다.

▶ L사(한국)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2022년) 세계 최초의 의류 관리기인 스타일러는 세탁기의 스팀 기술, 에어컨의 기류 제어 기술, 냉장고의 온도 관리 기술 등 주요 가전 제품에 이미 활용된 핵심 기술을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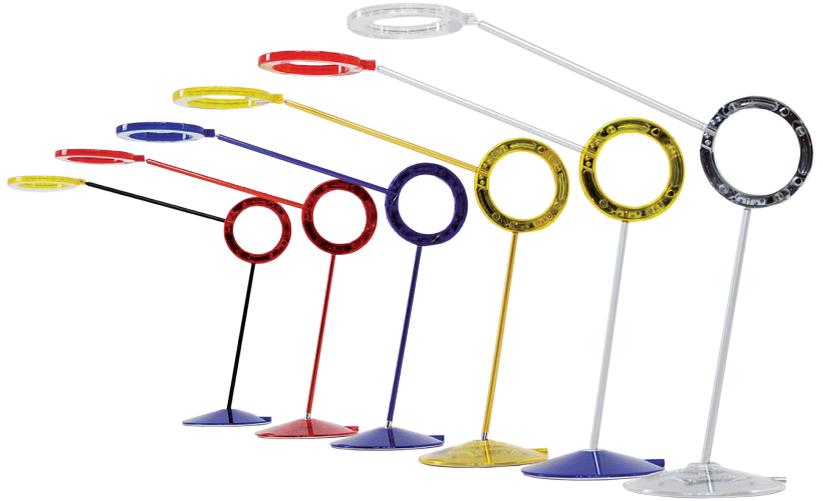


기능에 아름다움 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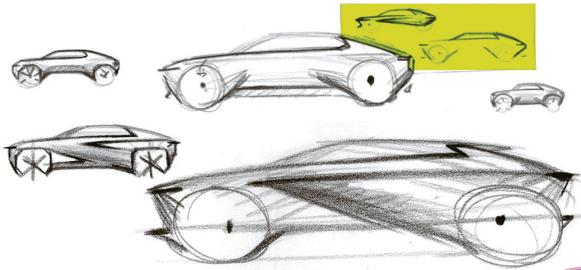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실용성은 물론이고 아름다움도 함께 고려하여 만들어진다. 재료, 기능성을 갖추면서도 심미적 요소가 결합된 제품을 함께 찾아보고 감각적인 제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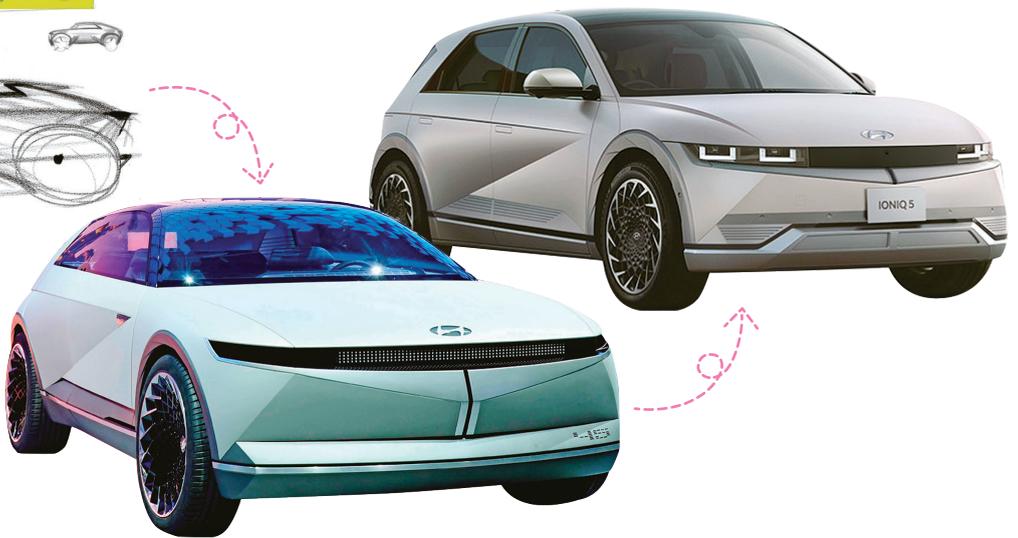
▲ 야콥센(Jacobsen, Arne/덴마크/1902~1974) **에그 의자**(1958년) 코펜하겐 로열 호텔의 로비와 리셉션 인테리어를 위해 디자인한 에그 의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멘디니(Mendini, Alessandro/이탈리아/1931~2019) **아물레토 램프**(2016년) 완벽한 링 모양의 원형으로 제작되었다. 세 개의 링은 각각 태양, 달, 지구를 형상화한 것이다. 아름다운 디자인과 흡입을 데 없는 기능으로 주목받아 뮌헨 현대 미술관에 영구 전시되어 있다.



▶ H사(한국) (좌) **콘셉트 자동차 45**(2020년), (우) **아이오닉5 모델**(2021년) H사가 디자인한 콘셉트 자동차 45는 1970년대 항공기 디자인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힘찬 직선으로 다이아몬드를 닮은 외관 형태를 갖추었다. 2020년 if 디자인 상과 IDEA 디자인 상을 수상하였으며, 2021년 아이오닉5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다.



알고 가기 지속가능한 패션, 리버서블 코트

기호가 바뀌거나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많은 옷이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진다. 이러한 소비 흐름에 패스트 패션이 문제로 제기된다.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값싸고 유행하는 옷을 마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덴트는 대안으로 지속가능하며 계절과 관계없는 모듈식 코트를 개발하였다. 이 코트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입을 수 있어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올 때 등 다양한 기후에 맞는 복장으로 변신한다.

▶ 덴트(Dant, Georgia/영국/1983~) **리버서블 코트**(마르파 스탠스/2019년)



일상에 위트 한 스푼!

참신하고 재미있는 생각은 일상에 활력을 주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샘솟게 한다. 재치와 유머가 깃들어 있는 제품을 찾아보고 디자인해 보자.



▲ K사(체코) **고슴도치 연필꽂이**(2013년) 24개까지 연필을 꽂을 수 있는 연필꽂이이다. 연필을 꽂으면 귀여운 고슴도치가 완성된다.



▲ 안다인(학생 작품) **오리너구리 북엔드**(점토에 채색/ 35×320×84cm) 재미있는 동물 형태로 북엔드를 제작하였다.



▲ M사(중국) **병아리 모양 램프**(2022년) 껍데기를 깨고 새로운 세상에 갓 태어난 병아리처럼 보이는 장난스러운 디자인의 램프이다.



▲ N사(한국) **클로바 램프**(2020년) 인공지능 독서 등. 램프가 비추는 글자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읽어 준다.



제품의 미래, 인공지능과 만나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사용자의 빅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정보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앞으로 미술과 어떻게 연결될까?



◀ L사(한국) **루미니 키오스크**(2020년) 인공지능에 증강 현실(AR) 기술을 더한 스마트 거울 서비스이다. 거울 앞에 서면 사용자의 피부 상태를 분석하여 노화의 정도, 얼굴 나이, 피부 관리 방법 등을 알려 준다.

알고 가기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다! DIY 디자인

DIY 디자인은 소비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손으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인기를 끈다. 또 직접 조립하는 공정을 거치므로 가격이 저렴하며 색다른 경험을 준다.



▶ 정다술(한국/생년 미상) **플랜테리어**(2022년) L사의 장난감에서 영감을 받은 실내 정원이다. 모듈 방식으로 구성되어 원하는 모양과 크기로 화분을 구성하고 크기에 맞는 식물을 심을 수 있다.



